RISTecBiz

SIMPAC그룹 계열사로 새출발을 합니다.

www.ristecbiz.com

안정된 기술력과 변함없는 품질로 신뢰받는 리스텍비즈는 SIMPAC그룹 계열사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리스텍비즈가 영위하는 자원재활용사업은 SIMPAC그룹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계열사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통합의 시너지를 발휘해, SIMPAC그룹의 더 큰 도약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녹색성장을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본사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6길 46 **TEL** 061-792-8812
광양공장 전라남도 광양시 제철로 2148-97 **TEL** 061-797-2000

리스텍비즈

SIMPAC STORY 2019 SPRING VOL.46

앞서 내다보는 통찰력
앞서 실천하는 실행력

Innovation & Change

SIMPAC story

2019 SPRING

VOL 46

SIMPAC

SIMPAC story

SIMPAC STORY 2019년 SPRING
통권 46호 **발행인** 최진식 **발행일** 2019년 7월 00일 **발행처** SIMPAC홀딩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 심팩빌딩 13층 **기획 및 디자인** 큐더스다임 02-6011-0200
사보 담당자 (주)SIMPAC홀딩스 이도영 사원 02-3780-4923 dylee@simpac.co.kr | 김유림 사원 032-590-2041 yurkim@simpac.co.kr
(주)SIMPAC 프레스BU 김다희 사원 032-510-0040 daheekim@simpac.co.kr (주)SIMPAC인더스트리 민혜림 사원 032-590-8812 hrmin@simpac.co.kr
(주)SIMPAC 메탈BU 선광규 과장 054-271-8724 kgsun@simpac.co.kr | 이준기 과장 041-360-0122 jklee@simpac.co.kr
(주)리스텍비즈 현지만 과장 061-792-8812 jmhyeon@simpac.co.kr

FACT & STORY

04
#01 INTRO
새로운 미래를 향한
SIMPAC그룹의 변화와 혁신

08
#02 INTERVIEW
변화와 혁신은
우리의 힘!

INSIDE SIMPAC

12
SIMPAC NEWS
SIMPAC그룹 소식

18
FOCUS
2019 상반기 신입사원 그룹사 투어

22
현장 인사이드
NEW하고 新하게,
변화를 향한 걸음은 이미 시작되었다

28
SIMPAC 人사이드
현장에서 답을 찾고 현장과 함께 발전하는 기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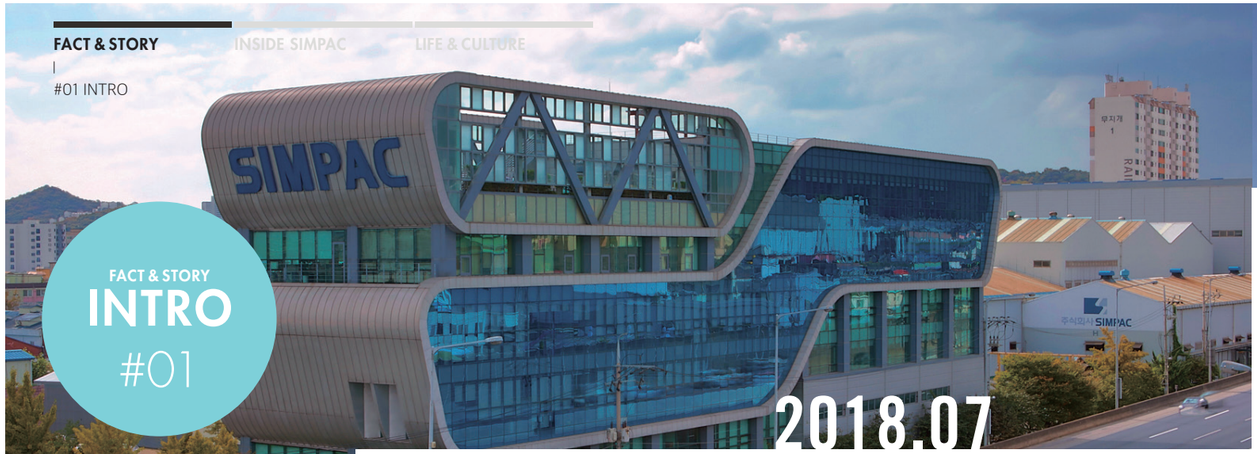
LIFE & CULTURE

34
워라밸 큐레이션
나에게 꼭 맞는 휴가를 찾아서

36
취미 프로젝트
팀원들과 떠나는 '맛집 탐방'

40
SIMPAC_STARGRAM
여행스타그램

42
우리들의이야기
축하합니다



FACT & STORY
INTRO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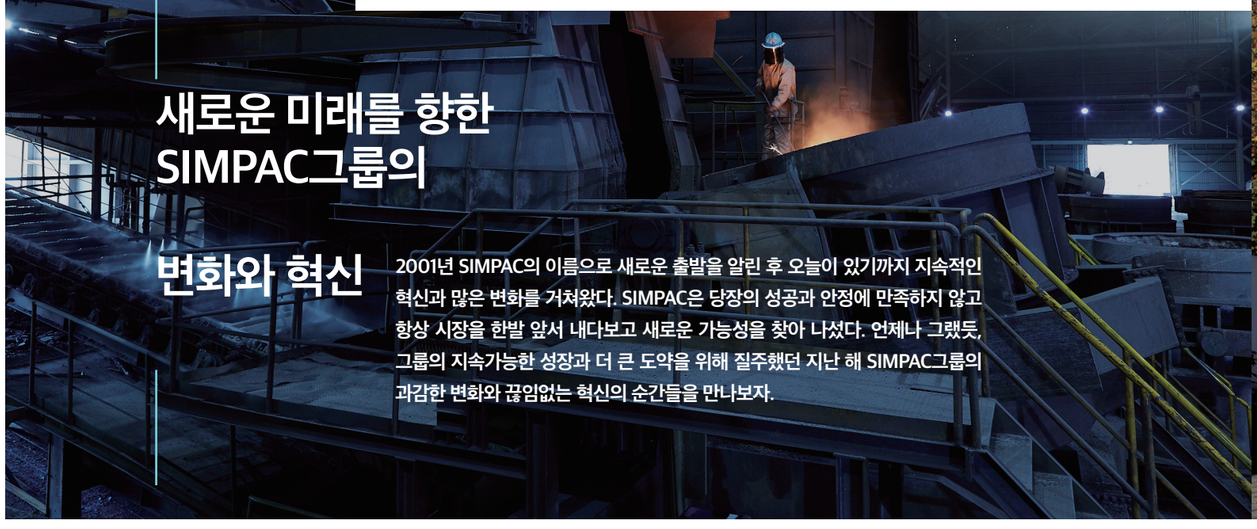
2018.07

Merger of SIMPAC and SIMPAC Metal

SIMPAC, SIMPAC메탈 전략적 합병

ISSUE 1

2018년 7월 SIMPAC과 SIMPAC메탈의 합병으로 SIMPAC이라는 사명으로 새롭게 시작했다. 이번 합병은 경영자원의 통합 시너지 창출과 경영효율성 증대를 위한 의미 있는 변화였다. 이를 통해 SIMPAC은 4천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과 부채비율 45%의 매우 견고하고 높은 수준의 재무안전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 경쟁력 강화, 자금운용 효율화 도모로 신규 사업기회 모색, 통합 법인 운영에 따른 관리비용 절감 및 경영 효율성 증대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주주가치 및 기업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감하고 전략적인 합병으로 SIMPAC의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강력하고 혁신적인 위상을 정립할 것이다.



새로운 미래를 향한 SIMPAC그룹의 변화와 혁신

2001년 SIMPAC의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알린 후 오늘이 있기까지 지속적인 혁신과 많은 변화를 거쳐왔다. SIMPAC은 당장의 성공과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시장을 한발 앞서 내다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나섰다. 언제나 그랬듯, 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더 큰 도약을 위해 질주했던 지난 해 SIMPAC그룹의 과감한 변화와 끊임없는 혁신의 순간들을 만나보자.

Launch of SIMPAC Europe GmbH and SIMPAC Czech

글로벌 사업 영토 확장을 위한 SIMPAC유럽 및 체코 출범

ISSUE 2

SIMPAC은 2016년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미국과 멕시코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 이후 2017년 SIMPAC유럽에 이어 2018년 8월 SIMPAC체코를 출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성장동력을 갖추게 되었다. SIMPAC은 해외 법인 설립을 통해 원천기술 확보와 기존 아시아 시장을 넘어 유럽, 미국 등 선진 시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세계 각지에서 인정받는 SIMPAC만의 기술력과 높은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사업 발전을 위한 폭넓은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향후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며 혁신과 내실을 통한 지속 성장기반 구축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행보를 이어 나갈 것이다.

2018.08

FACT & STORY
INTRO
#01

2018.10

Participated in EuroBLECH 2018 Hanover

글로벌 사업 역량 확보를 위한
2018 독일 하노버 전시회 (EuroBLECH 2018) 참가

ISSUE 3

SIMPAC은 2018년 10월, 핵심 사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 독일 하노버 전시회 (EuroBLECH 2018)'에 참가했다. EuroBLECH 2018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판금속 전시회로 세계 주요 국가의 금속가공에 관한 트렌드와 장비들을 파악할 수 있는 전시회다. SIMPAC은 지속적인 글로벌 전시회 참가를 통해 최신 제품과 발전된 기술을 습득하고 산업동향 등을 파악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뿐만 아니라 제품과 기술력 홍보로 세계시장에 SIMPAC의 기업 이미지 제고와 고객사 유치 기회 확보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국내를 넘어 유럽시장 개척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2018.10

ISSUE 4

Addition of RISTecBiz as an affiliate

리스텍비즈, SIMPAC그룹 계열사로 합류

SIMPAC은 2018년 10월 포스코 계열사인 리스텍비즈를 인수를 통해 기존 프레스와 합금철사업 외에 본격적으로 자원재활용사업 부문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마련했다.
리스텍비즈는 철강공정 중 발생되는 2차 분진에 함유되어 있는 아연(Zn)을 회수해 고순도 산화아연(ZnO)을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외에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습식 제조공법에 대한 단독 사용권을 가졌을 뿐 아니라, 포스코와 원료에 대한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편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및 국제 아연 가격의 상승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큰 폭의 영업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산업 다방면으로의 진출과 기술력 극대화를 위해 SIMPAC그룹의 일원이 된 리스텍비즈는 변화를 두려워 않고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지금보다 더 나은 품질과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FACT & STORY
INTERVIEW
#02

'도전'하지 않으면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기 힘듭니다.
변화와 혁신은 기본적으로 현 상태를 바꾸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도전정신이 꼭 필요한데요.
도전하지 않으면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없는 만큼,
심팩 가족 모두 도전하는 삶을 이어 가면 좋겠습니다.

SIMPAC 프레스BU 품질경영팀 유재희 사원

변화와 혁신은 우리의 힘!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은 곧 기업의 얼굴이다. 따라서 품질을 관리하는 직원들은 자기 업무에 대한 혁신 의지와 제품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실행력을 겸비해야 한다.
여기 각자의 위치에서 품질 관리에 몸담고 있는 세 명의 심팩인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변화와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들에게 들어 보자.

변화와 혁신은 '촉매'입니다.
변화와 혁신은 결국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는 건데요. 이를 돌려 말하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변화와 혁신이라는 촉매가 있어야 목표도
한층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리스텍비즈 생산팀 윤현준 사원

변화와 혁신은 '꾸준함'입니다.
수영을 하다 보면 이른바 '수태기'가
찾아오는데요. 수영이 잘 안 되면서 하기
싫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넘기지
못하면 포기하게 되고, 결국 수영을 하지
못하게 되죠. 이렇듯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SIMPAC 메탈BU 생산지원팀 박경호 대리

FACT & STORY
INTERVIEW #02

Q 일하면서 가장 큰 변화를 느꼈던 때는 언제인가요?

박경호 대리_저는 2014년 6월에 입사한 후 줄곧 설비 유지·보수파트를 맡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부서가 통·폐합되면서 업무상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품질기술개발팀과 제가 속해 있던 설비안전팀이 합쳐지면서 새로운 업무에 도전하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설비 유지·보수업무 외 인증 서류 준비·고객 문의 처리·문제점 방지 대책 수립·품질 검사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회사 내 다양한 분야를 접함으로써 업무를 바라보는 시야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유재희 사원_작년에 품질경영팀이 3층에서 5층으로 이사했는데요. 3층에 있을 때는 직접적인 유관부서가 딱히 없어서 매번 다른 층을 오가며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5층으로 옮기고 보니 생산팀·외주관리팀 등 협업 부서가 대부분 모여 있더군요. 그러다 보니 서로 얼굴 마주할 일도 많아졌고, 자연스럽게 교류와 소통이 잦아져서 일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서를 옮겼다는 측면에서는 별일 아니지만, 이러한 이점을 몸소 느끼다 보니 저에게는 대단한 변화로 다가왔죠.

윤현준 사원_리스텍비즈는 원래 포스코 계열 연구기관이었다가 작년 10월 심팩의 가족으로 편입되는 큰 변화를 겪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합병 초기에는 직원들의 실무적인 역량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서류적인 부분이 많이 미흡했고, 회사의 사업성도 상당히 떨어져 있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전 구성원이 힘을 합쳐 하나둘 일을 배우고 서로 도와주다 보니 지금은 회사가 많이 안정화됐습니다.

Q 업무를 하면서 자신의 긍정적 변화를 실감한 일이 있다면?

유재희 사원_보통 신입사원급은 외근이나 출장을 선임과 함께 보내서 이것저것 배우게 하는데요. 작년 여름에는 해외 출장을 혼자 다녀왔어요. 체코 현지 고객사에 납품된 프레스를 점검·관리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동안 배운 대로 프레스를 테스트하고 그 수치를 고객사 직원에게 확인시키고 다양한 요구사항을 프레스에 반영하는 등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업무를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선배들의 칭찬도 많이 들었죠. 이때 처음으로 '내가 드디어 한 사람 몫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윤현준 사원_저희는 정제 기술을 활용해서 산화아연을 만드는데요. 여기에는 정제를 돕는 부원료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전에는 그 양만 110kg에 달했는데요. 원가 및 폐기물 절감을 위해 부원료를 다른 것으로 바꾸고 투입량을 조절하는 등 몇 개월에 걸친 생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부원료를 35kg만 투입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폐기물 양도 기존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수율도 90%에서 95%로 꽤 많이 올랐죠. 저와 회사의 성장을 몸소 느낀,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박경호 대리_고객사 클레임을 제대로 처리할 때마다 제가 조금씩 더 성장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애초에 불량률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일을 진행하다 보면 품질에 대한 불만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절대 만족'이라는 네 글자를 가슴에 새기고 고객사로 향하죠. 이후 다양한 조치 끝에 고객사 직원들의 환한 미소를 볼 때, 그리고 그간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때 정말 뿌듯합니다.

Q 내 안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윤현준 사원_저는 요즘 분석 방법에 대해 공부합니다. 저희의 본업은 '정제'지만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세부 성분을 분석하기도 하는데요. 저희 쪽에서 나오지 않은 결과일지라도, 분석 방법을 달리 하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제 회사인 만큼 분석 장비가 많지 않아서, 주어진 환경 내에서 최대한 다양한 분석법을 활용해야 하죠. 따라서 분석 장비에 대한 연구와 보다 면밀하게 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령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경호 대리_우리 회사는 규모는 작지만 구성원들이 상당히 젊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일만 확실히 하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줍니다. 물론 저도 그 혜택을 보고 있죠. 요즘에는 설비 유지·보수파트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CAD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고요. 3월부터는 회사 출근 전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능력'이라는 걸 점점 더 절실히 깨닫고 있거든요.(웃음)

유재희 사원_제 업무 중에는 나라별 인증을 받기 위한 서류 준비도 포함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학, 특히 영어 실력이 중요하더군요. 그래서 최근에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주일에 3일, 한 번당 2시간씩 공부할 수 있도록 영어 수업을 열어 주는데요. 저는 여기에 더해 전화 영어 수업도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공통어인 만큼, 영어 공부가 현재 업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개인 커리어에도 큰 도움을 줄 거라 확신합니다.

Q 앞으로의 변화와 혁신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그 계획과 목표가 궁금합니다.

박경호 대리_가정과 회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운동도 꾸준히 하고 가정에 충실해서 보다 멋진 남편, 좋은 아빠로 거듭나고 싶고요. 3년마다 KS 심사가 돌아오는데, 올해가 바로 그 해입니다. 그래서 KS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곧 다가올 여름 설비 유지·보수기간에 맞춰서,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공장 곳곳을 꼼꼼히 살펴보고 고칠 예정입니다.

유재희 사원_입사 후 지금까지 나름대로 일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처럼 맡은 업무와 자기계발에 최선을 다하되, 여유 시간에는 개인적인 취미생활도 즐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택한 게 바로 '유튜브'인데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 제 성향에 걸맞게 '페이퍼 크래프트'를 배워서 다양한 종이접기 영상을 올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조만간 영상 올릴 테니 꼭 한 번씩 봐 주세요!(웃음)

윤현준 사원_대학원 박사과정을 밟을 때는 촉매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요. 입사 후 정제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 촉매만큼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정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해 보고 싶고요. 올해 초 세운 목표 중 하나가 '혼자 일본여행 가기'였는데, 10월에 후쿠오카에 다녀올 것 같습니다. 별렀던 여행이니만큼, 즐거운 추억 쌓아서 재미있는 얘기 많이 들려드릴게요!

SIMPAC NEWS

5.15
SIMPAC 메탈BU 포항공장
가정의 달 기념 직원 가족 영화 관람 행사 진행

5.13
SIMPAC 프레스BU
'2019 중견기업 일자리드림 페스티벌' 참석

5.8
SIMPAC 메탈BU 당진공장
어버이날 맞이
지역 경로당 간식 전달 실시

5.18
SIMPAC 메탈BU
제20회 철의 날 기념 철강마라톤 대회 참가

5.19
SIMPAC 메탈BU 포항공장
제19회 통일기원 포항해변마라톤대회 참가

6.7~6.8
SIMPAC 프레스BU
B, C조 직급별 간담회 실시

6.12~14
SIMPAC그룹
'상반기 신규입사자 그룹사 투어' 실시

5.29
SIMPAC 메탈BU 당진공장
문화가 있는 날 기념 문화회식 실시

5.31~6.1
SIMPAC 프레스BU
A조 직급별 간담회 실시

5.20
SIMPAC 메탈BU 포항공장
재해예방 캠페인 실시

SIMPAC NEWS

SIMPAC그룹

'상반기 신규입사자 그룹사 투어' 실시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 상반기 신규입사자 그룹사 투어를 실시하였다. 19년도 상반기 그룹사 투어에서는 SIMPAC 프레스BU 18년~19년 수시 채용 9명, 2019 상반기 채용 11명, 메탈BU 1명, 홀딩스 1명, 인더스트리 2명, 리스텍비즈 1명으로 총 25명의 신규입사자들이 선발되어 참석하였다. 신규입사자 그룹사투어는 첫 번째 날에 프레스BU 현장탐방을 시작으로 홀딩스 ENG BU(검단), 인더스트리(가좌), 주물(남동)을, 둘째 날은 메탈BU(당진)에서 출발하여 리스텍비즈(광양)를, 마지막 날은 메탈BU(포항) 방문을 끝으로 복귀하는 일정으로 3일 간 진행되었다.

이번 투어를 통해 신규입사자들은 각 계열사 현장을 면밀히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각 그룹사의 주요제품, 역사, 경쟁력 등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들음으로써 SIMPAC그룹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값진 시간이 되었다. 또한, 신규입사자들은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배들을 만나 서로 따뜻한 인사와 대화를 나누며 현업 분위기를 익혔다. 앞으로 오랜 시간 함께할 선배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축하의 말을 들으며 선배들과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신규입사자들은 모두 남다른 각오와 패기로 무장하여 2박 3일간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다. 이번 그룹사투어는 앞으로 SIMPAC그룹을 이끌어 갈 신규입사자들에게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SIMPAC그룹은 그룹에 대한 이해도 향상뿐만 아니라 SIMPAC인으로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매년 그룹사 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SIMPAC 프레스BU

'2019 중견기업 일자리드림 페스티벌' 참석

SIMPAC 프레스BU는 지난 5월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중견기업 일자리드림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중견기업 90개사와 청년 취업준비생 4,000여 명이 참석한 이 행사는 최근 어려운 청년 일자리 상황 해소에 도움이 되기 위해 마련한 중견기업 전용 일자리박람회로, 우수 중견기업을 청년구직자들에게 집중 소개하고 채용효과를 극대화하는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이번 박람회는 당사 부스에서 다양한 인재들과 일대일 직무 멘토링, AI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 다양한 채용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향후 우리 회사는 다양한 채용박람회에 적극 참여하여 훌륭한 인재 및 당사 홍보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직급별 간담회 실시

직급별 간담회가 5 월 31일~6월 1일, 6월 7일~8일 총 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홀딩스 기계구매팀, 홀딩스 ENG BU 생산관리팀을 포함하여 프레스 BU 관리직 인원 약 140명이 직급별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회사의 현 상황을 직시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변화/혁신 방안모색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간담회는 조별로 간담회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하고 토론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취합하여 각 조별 결과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직원들은 요동치고 있는 국제 정세에서 SIMPAC 프레스BU가 글로벌 프레스 전문 기업을 거듭나기 위해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다. 추후 제시된 해결방안들은 좀 더 구체화하여 실제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직급별 인원들이 모여 진행됨으로써 보다 솔직하고 다양한 의견 공유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임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SIMPAC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전열을 재정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SIMPAC NEWS

SIMPAC 메탈BU

포항공장, 건강과 소통을 위한 마라톤 행사 진행

지난 5월 18일 하남시 경정공원에서는 '제20회 철의 날 기념 철강마라톤 대회'가 개최되었다. 우리회사는 철강협회 정회원사이며, 이번 대회 협찬사로 참여하였다. SIMPAC 메탈BU 송효석 사장은 철강협회 이사로서 행사에 참여하여 5km 시총 및 경품 추첨에 참여하였다.

이날 행사는 서울, 포항, 당진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한 곳에 모여 함께 땀흘리고 즐기는 자리가 되었다. 평소 유선으로 업무를 공유하고 자주 만나지 못했던 직원들은 오랜만에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식사하고, 친선 경기를 펼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이날 송효석 사장은 공장과 사무실에서만 보던 직원들과 탁 트인 잔디밭에서 편한복장을 하고 만나 격없이 함께 어울리며 경기에 참여하였으며, 오늘 보여준 여러분의 미소와 웃음소리가 항상 계속되는 회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인사 말을 전했다.

철강마라톤 대회를 마무리 하고 다음날은 SIMPAC 메탈BU 포항공장 임직원들과 임직원 가족들이 포항종합운동장에서는 '제19회 통일기원 포항해변마라톤대회'에 참여했다. 우리 회사에서는 매년 직원과 가족들의 신청을 받아 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총 30여명의 임직원과 가족들이 참여하였으며, 바쁜 일상에서 잠시 물러나 동료와 가족과 함께 푸른 형산강과 동해바다를 옆으로 하고 달리며 서로에게 웃음을 주는 시간이 되었다. SIMPAC 메탈BU 포항공장은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가족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포항공장, 재해예방 캠페인

지난 5월 20일, SIMPAC 메탈BU 포항1공장의 노동조합 배강규 위원장과 조합원들은 나른한 봄날 자칫하면 발생 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자 정문과 현장 곳곳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작업자 스스로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노동조합 차원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배강규 위원장은 "작업자 스스로가 안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라며 당부를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회사 차원의 재해예방 캠페인이 아니라 작업자들이 스스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캠페인을 펼쳐 큰 의미가 있었으며, 향후 캠페인외에도 재해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및 실행할 예정이다.

당진공장, 어버이날 맞이 지역 경로당 간식 전달 실시

당진공장은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공장 인근에 위치한 신시리/천의리 경로당에 간식을 전달하였다. 간식은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시루떡, 절편과 음료를 준비하여 생산지원팀 장진석 부장을 필두로 팀원 2명이 같이 갓 나온 따끈따끈한 떡을 가지고 경로당에 방문하였다. 갑작스러운 당진공장 직원들 방문에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깜짝 놀라시며, 준비한 간식과 안부 인사에 아이들처럼 좋아하셨다. 장진석 부장은 "작은 도움이지만 행복해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나눔의 즐거움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SIMPAC 메탈BU 당진공장의 직원들이 이 기쁨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함께 전했다. 이에 신시리 김동윤 이장은 "평소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며, 지역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당진공장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전했다.

당진공장, 문화가 있는 날 기념 문화회식 실시

당진공장은 지난 5월 29일 문화회식 행사를 실시했다. 해당 행사는 직원 복지 일환으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번 문화회식은 당진 문예의 전당에서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기념하여 제공하는 공연을 관람했다. 관람한 공연 '동백꽃'은 김유정 작가의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어린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라 남녀노소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연극이다. 당진시의 지역 특성상 수도권에 비하여 문화/예술의 경험 기회가 적어 직원들에게 술 위주의 회식 문화를 벗어나 직장동료들과 건전한 문화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장이 되었다. 공연을 보는 내내 직원들은 박수를 치며 같이 호응도 하며 재미있게 관람을 하였고, 공연 종료 후 간단한 호프타임을 하며 직원들의 사기가 충전되는 시간을 가졌다. 문화회식에 참여한 직원들은 여가생활까지 고려한 회사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를 전했다.

2019 상반기 신입사원 그룹사 투어

내 심장을 두근두근 뛰게 하는 에너지를 찾다!

지난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 2019 상반기 신입사원들의 그룹사 투어가 진행되었다.
신입사원들은 부평, 검단, 가좌, 남동 등의 경기 지역을 비롯해 당진, 광양, 포항에 위치한
계열사들을 살펴보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
SIMPAC그룹의 일원으로서 한걸음 더 탄탄하게 성장한 이들의 시간을 함께했다.

2014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그룹사투어. 올해도 스물다섯 명의 신입사원들이 그룹사를 돌아보며 회사와 조직을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그룹사 투어는 단순히 생산설비를 둘러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계열사와의 사업연관성과 그룹의 구조 등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SIMPAC그룹을 자세하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 신입사원들의 애사심과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또 계열사 신입사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SIMPAC그룹의 일원으로서 빠른 적응을 돕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 계열사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 2박 3일 간의 일정이 다소 빡빡했지만, 신입사원들은 매순간 진지한 태도와 배움의 자세로 그 어느 해보다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1day. 기계 산업의 연관성을 배우다!

그룹사 투어가 진행되는 첫째 날.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부평공장으로 모인 신입사원들은 투어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동기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후 부평공장을 시작으로 드디어 투어 시작! 공장으로 향하는 신입사원들의 발걸음은 활기차고 힘이 넘쳤다.
첫날은 그룹사의 기계산업 부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프레스를 생산하는 부평공장(프레스BU)에서 시작된 투어는 검단공장(SIMPAC홀딩스 ENG BU)으로 이어졌다. 검단공장은 프레스를 생산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프레임이 제작되는 곳. 신입사원들은 이곳에서 프레임 제작 공정을 살펴보고, 가좌1공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좌1공장에서는 프레스의 기어가 가공되는 기업숍을 방문했으며, 이후 심팩 프레스의 일부 소형기종이 제작되는 가좌2공장도 찾았다. 또 심팩 프레스의 주물부품이 납품되는 남동공장으로 자리를 옮겨 기계사업 간의 사업연관성을 찬찬히 살펴볼 수 있었다.
SIMPAC 프레스BU 기계설계팀 박영웅 사원은 "SIMPAC의 프레스를 만들 때는 계열사 간의 협업을 통해 공정이 이뤄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번 계열사 투어를 통해 프레스 제작을 위한 일련의 공정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며 첫날 투어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스케줄을 마친 신입사원들의 얼굴에는 뿌듯한 기색이 느껴졌다. 신입사원들은 "첫날이었지만 각 공정별로 SIMPAC이 하는 사업을 익힘으로써 회사가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며 엄지를 치켜들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재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낸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day. 새로운 가치로 발견하는 회사에 대한 자부심

당진공장(메탈)과 광양공장(리스텍비즈)을 방문하는 둘째 날. 전날의 강행군으로 피곤할 법도 한데 신규입사자들의 표정에선 피곤함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당진공장과 광양공장을 둘러본다는 설렘 덕분인지 신입사원들의 눈은 6월의 햇빛처럼 눈부시게 빛났다.

그룹사 중에서 가장 최근에 지어진 당진공장은 최신의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또 매년 그룹사 투어를 진행할 때마다 신규입사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곳이기도 하다. 이번 투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공장이라고 하면 으레 매연이 나오는 굴뚝 등을 연상하지만, 당진공장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또 당진공장처럼 큰 공장이 단지 수십 명의 인원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에 신입사원들은 놀란 표정이었다.

오후에는 지난해 말 SIMPAC그룹의 일원이 된 리스텍비즈를 방문하여 자원재생 등의 새로운 사업유형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철강제품을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에서 고가의 자원을 추출하는 색다른 사업모델에 대해 신입사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SIMPAC인더스트리 설계팀 조민현 사원은 리스텍비즈를 둘러본 후 "SIMPAC그룹은 내 젊음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라고 생각한다"며 인상 깊었던 점에 대해 소개했다.

"리스텍비즈에서 공정부산물을 이용하여 산화아연을 제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재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낸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팩에서 그러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당진공장과 리스텍비즈 투어를 통해 제가 잘 알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 알게 돼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투어를 마친 후에는 저녁식사를 하며 가볍게 맥주 한잔으로 목을 축이며 서로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신입사원들은 타 계열사 신입사원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신입사원들 모두 비슷한 또래이기에 그들만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여기저기서 웃음꽃이 만발했다. 비록 근무하는 장소, 업무 환경, 하는 일은 모두 달랐지만, 이들은 SIMPAC그룹의 일원으로 어느새 하나가 되어 있었다.

3day. SIMPAC그룹의 내일은 우리 손으로!

그룹사 투어의 마지막 날은 메탈BU 포항공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포항1공장(합금철)에서는 전날 방문했던 당진공장과의 차이에 대해 배우며 합금철사업부문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리고 포항2공장(롤)에서는 환경개선 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신입사원들은 매순간 진지한 태도로 설명을 듣고 잘 모르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며 적극적인 태도로 투어에 임했다. 이를 통해 몰랐던 지식을 채웠을 뿐만 아니라 SIMPAC그룹에 대한 자신만의 소중한 가치를 마음속에 채울 수 있었다. 리스텍비즈 생산지원팀 여진호 사원은 이번 투어에 대해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힘든 환경 속에서 직원들 손으로 일군 회사라며 자랑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보며 큰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경기침체와 치열한 경쟁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SIMPAC그룹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품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회사를 함께 이끌어 경쟁력 있게 만들어준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 최선을 다해 제 꿈과 가치를 심팩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어를 마친 신입사원들은 하나같이 "지금까지 회사를 이끌어오신 선배들처럼. 앞으로 저희 신입사원들도 SIMPAC그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원들로 발전하겠다"며 각오를 전했다. 이들의 밝은 얼굴에서 심팩그룹의 희망찬 내일이 그려졌다.

SIMPAC Press BU

NEW하고 新하게,

변화를 향한 걸음은 이미 시작되었다

받아들이고 관찰하며 적용하라. 세계적 디자인 집단 IDEO 그룹의 톰 켈리 공동대표가 밝힌,
이른바 혁신의 3대 요소. 프레스 제조 No. 1 메이커로의 성장을 준비 중인 이들의 노력과 닮은 이야기였다.
열혈 현장에서 새 역사를 쓰고자 하는 이들의 결의와 맞닿는 지점이었다.
익숙하고 편한 자리에서 일어난 SIMPAC 프레스BU가, 걷고자 하는 길이기도 했다.

김광현 대리 | SIMPAC 프레스BU 생산팀
박석희 대리 | SIMPAC 프레스BU 생산팀

#고객사가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경쟁력 구비

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 1만 시간 이상 노력해야 한다는 1만 시간의 법칙. 1973년 동성개발공업으로 출발해 2019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SIMPAC 프레스BU는 46년이라는 시간을 프레스 개발과 제조에 쏟아왔다. 성공을 거두고도 차고 넘쳤을 노력 덕분에, 국내 대표 프레스 제조사라는 이름표도 얻었다. 그 이름표를 달고 국내 유수 기업들을 고객사로 만나왔으니 이쯤이면 만족해도 좋은 자리였다. 하지만 SIMPAC 프레스BU도 구성원도 모두 세계시장을 향한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국내 대표 프레스 제조사에서 '세계적인 프레스 메이커'가 되겠다는 목표를 품고 있었다.

"일반인에게 SIMPAC 프레스BU는 낯선 기업일 겁니다. 현대위아, 현대로템, GM대우, 삼성전자, 성우하이텍과 같은 기업이 우리의 주요 고객이니까요.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사양대로 맞춤형 기계를 제작해 납품하다 보니, 업계종사자가 아니라면 회사 이름을 들을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당신이 타는 자동차 문짝과 보닛, 세탁기 내 세탁조와 밥솥 안 내솥 등의 모양을 찍어내는 기계인 프레스를 제작한다고요. 알고 보면 우리가 생산하는 프레스와 실생활은 꽤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뛰어난 품질을 지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고성능 프레스 개발에 힘써왔습니다."

SIMPAC 프레스BU 생산팀 김광현 대리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동종업계에서 SIMPAC 프레스BU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단연 1위. 국내 점유율에서 독보적 우위를 고수하며, 고객사가 다시 찾는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치열한 수주 싸움에서 SIMPAC 프레스BU가 고객사의 선택을 받는 이유는 분명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제조 기술부터 정확한 니즈 파악, 신뢰 있는 납품 약속까지 삼박자가 흐트러진 적이 없었다. 박석희 대리는 경쟁업체들이 따라 할 수 없는 SIMPAC 프레스BU만의 경쟁력은 그뿐이 아니라고 했다.

"현재 우리는 35t 소형에서 2,600t 초대형까지 다양한 프레스 생산이 가능합니다. 라인업이 한정적이지 않아, 고객사의 니즈에 100% 맞춘 결과물로 기술력을 증명해온 겁니다. 잘 구축된 A/S 망 또한 독보적인 경쟁력이죠. 타 업체들과 달리 국내외 영업소에 A/S 전담 인력을 배치해, 고객사의 불편을 최소화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프레스에 문제가 발생하면 생산 차질로 이어져서 신속 정확한 A/S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고객사가 처할 수 어려움을 고려해 해결방안을 마련해놓음으로써, 우리에 대한 만족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세계시장 개척 위해 기술개발 투자에 나서

46년간 탄탄히 기초를 쌓아온 SIMPAC 프레스BU에도 위기의 순간은 가볍거나 쉽지 않았다. 매년 더해가는 경기침체는 프레스 제조업계 부동의 1위에게도 매서운 존재였다. 점차 좁아지는 국내 시장에 대비해 세계시장으로 눈을 돌렸지만, 아직은 터를 닦는 단계. 해외 진출에 투자와 시간은 필수적이라, 조바심내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덕분에 까다롭다고 알려진 유럽 시장을 공략할 고성능 프레스 개발이 70%가량 완료됐다. 독일 법인과의 협업으로 진행된 소형 및 중형 프레스 개발이 설계를 끝내고, 연내 제작을 앞두고 있다. 박석희 대리는 개발된 프레스가 유럽은 물론 국내까지 사로잡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우리는 재작년에도 최고 완성도를 갖춘 2,000t급 트랜스퍼 프레스 제작에 성공했습니다. 고된 과정이었지만, 고객사에 안전하게 프레스를 인도했다는 사실이 무척 벅찼죠. 고객사로부터 역시 심팩이라는 평가도 들었고요. 현재 독일법인과 개발 중인 서보 프레스도 심팩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어떤 뛰어난 결과물이 나오는지 증명해줄 겁니다. 모든 크랭크 모션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서보 프레스는, 우리가 추구하는 혁신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존 프레스로도 고객사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요. 이전보다 효용성은 넓고 효율성은 높은 고성능 프레스로, 고객사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SIMPAC 프레스BU는 독일에 이어 중국, 태국, 터키에 진출해 세계시장 개척에 집중하고 있다. 단시간에 성과를 얻을 욕심은 애초부터 없었다. 그간 쌓아온 SIMPAC 프레스BU의 기술과 영업력을 시험받고자 한다. 문제를 발견하고 고쳐나가는 과정을 경험하려고 한다. 지금까지의 SIMPAC 프레스BU가 오늘을 위해 존재했다면, 변화하는 SIMPAC 프레스BU는 내일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김광현 대리는 직원들도 회사의 성장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기대가 큰 만큼 현장에서도 부서 간 협업에서도, 하나로 뭉쳐 일하고 있다.

"프레스 제작은 유관부서 협업이 절대적이라, 업무와 감정에서 원활한 교류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ISO 9001 운영으로, 업무분담과 관리 및 위기대처까지 가능한 품질경영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어느 방향이 맞는지 두리번거리지 않고도 제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타 부서 직원들과도 술 한 잔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관계가 좋아, 업무로 인한 큰 갈등이 발생하는 일도 없습니다. 특히 현장 직원들의 단합은 그 누구보다 끈끈합니다. 프레스를 만들고 시연해서 고객사에 인도하는 험난한 과정을 함께 하면서, 서로의 어려움을 자연스레 나누기 때문입니다."

#구성원을 향한 애정은 회사가 발전하는 힘

프레스 하면 곧 심팩. 이 공식이 세계시장에서 통용되는 날을 SIMPAC 프레스BU는 기다리고 있다. 아니, 그 날을 만들기 위해 기술개발에 이어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애써왔다. 복날 삼계탕을 직원 집으로 배달해 손수 가족까지 챙기는 배려에서, 적절한 휴가비 지급으로 휴식과 충전을 지원하는 일. 또 어학교육과 같은 여러 사내교육으로 자기계발을 독려하는 제도까지 꾸준히 운용 중이다. 김광현 대리는 '금전적인 부분을 떠나 회사가 직원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힘이 난다'며, '그 힘으로 빼어난 외관을 지닌 작품 같은 프레스를 만들고 싶다'는 목표를 들려주었다. 5월 말, 직급별 워크숍에 다녀왔다는 박석희 대리는 회사가 마련한 소통의 시간이 특별했다고 말했다.

"독일과 일본 선진사가 경계하는 라이벌로 올라서려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회사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법을 찾으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 의지는 강제할 때가 아니라, 이번 워크숍처럼 자유롭게 토론하고 소통할 때 발휘될 거고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직원들이 많아지면, SIMPAC 프레스BU의 최전성기를 다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더 훌륭한 환경 더 합리적인 시스템에서 후배들이 일하도록 해주고 싶은, 선배들의 바람도 이뤄질 겁니다."

이것이 SIMPAC 프레스BU다

김광현 대리 |
흐린 뒤 찾아오는 맑음처럼, SIMPAC 프레스BU의 내일은 위기 후 찾아오는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는 경제침체라는 위기와 마주하고 있지만,
지금의 위기를 재도약할 기회로 만들 저력을 갖추고 있다.

박석희 대리 |
SIMPAC 프레스BU는 모래시계를 닮았다. 시계 속 모래가 좁은 관을 한 번에 통과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흘러내려 목적지에 도달하고야 만다.
차근히 기술을 축적해 세계 속 기업으로 성장하려는 우리와 같다.

Communication

SIMPAC 메탈BU 당진공장 생산팀 최재우 팀장

현장에서 답을 찾고 현장과 함께 발전하는 기쁨

생산 분야에서 일한 지 어느덧 18년째. 최재우 팀장은 오롯이 생산이라는 한길만 걸어왔다.
아무것도 모르던 사원에서 생산팀의 팀장으로, 그리고 생산 분야의 베테랑이 되기까지
그는 늘 현장에서 탐구하고 현장에서 해답을 찾았다.
그러는 사이 최재우 팀장에게는 현장 기술과 현장 노하우가 쌓였다.
스스로가 말을 많이 하는 대신 직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직원들의 마음에 먼저 다가서려 노력했던 그.
경청을 가장 중요한 자세로 여긴다는 최재우 팀장은 '초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까지 왔다.

최재우 팀장은 매일 현장을 방문해
꾸준히 소통하고 경청한다
이는 현장 기술과 노하우를 터득한
비결이다

경청을 바탕으로 한 현장과의 소통

SIMPAC 메탈BU 당진공장 생산팀은 철과 두 종류 이상의 금속이 결합된 합금철인 고탄소 페로망간를 비롯해 고탄소 페로망간에 정련 공정을 거친 중탄소 및 저탄소 페로망간을 생산한다. 최재우 팀장은 당진공장 생산팀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중탄소 및 저탄소 페로망간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은 전국에서 총 세 곳뿐. 때문에 최재우 팀장은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최재우 팀장이 업무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은 바로 '현장'이다. 관리자로서 생산에 필요한 이론을 많이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얻는 경험은 이론과는 견줄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 그래서 그는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애쓴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경청'이다. 자신이 말을 많이 하기 보다는 현장 직원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면서 현장 직원들의 값진 노하우를 얻고자 노력하는 것.

업무에서 '관심 두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관심이 없으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현장에 나가서도 뭔가 하나를 내 것으로 만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 때문에 최재우 팀장은 현장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점검한다.

Productivity

생산력 향상을 위한 도전과 혁신

효율적인 활용으로
SIMPAC 메탈BU 당진공장의
최고의 성과를 꿈꾼다

당진공장은 정련 공정에 필요한 설비인 전기아크로 두 대를 보유하고 있다. 전기아크로를 가동할 때의 문제점은 전기료가 원가의 비중을 너무 많이 차지한다는 것. 때문에 그동안 전기요금이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되는 봄, 가을 시기에 설비 가동을 해왔다. 하지만 최재우 팀장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올 3월부터는 봄과 가을에 최대생산을 하겠다는 목표로 정련조업의 횟수를 하루 8회에서 16회로 늘였다. 당진공장에서 정련공정이 하루 8회씩 진행된 게 2017년부터이니 16회라는 횟수는 새로운 도전인 셈. 최재우 팀장은 새로운 시도에 대한 개선점을 찾으면서 향후 생산력 향상을 위한 기반이 될 데이터 구축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더불어 그는 정련조업의 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적용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불량 제품을 줄이는 것. 1000℃이상의 쇳물을 강제 냉각 시킬 때 조직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 쇳물 안에 실리콘을 투입하여 조직을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 쇳물을 냉각하는 과정에서 질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의 다양한 공법이 현재 시도되고 있다.

또한 정련조업 횟수 증가에 따라 인력도 더 필요하게 되면서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방안도 모색 중이다.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직원들의 피로를 줄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공정을 줄일 수 있을지 등 그의 고민은 끝이 없다. 그의 최종 목표는 원가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Quality

가치의 중심에
고객을 최우선으로,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한다

수요자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품질관리

수요자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품질관리도 중요한 업무다. 품질관리란 예를 들어 망간 성분이 73%가 필요하다는 고객의 니즈가 있으면, 원료를 브랜딩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쇳물은 분석실에서 가져가 분석을 거친다. 고객의 니즈에 완벽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사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

최재우 차장은 이밖에도 공장에서 필요한 안전장비 등의 소모품이나 모래, 왕겨 등의 저장품들의 자재를 구매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당진공장이 쉬지 않고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Environment

산업 분야의 '환경'이 중요시 되고 있는 지금,
환경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을 실천하고 있다

환경 업무도 철저하게!

환경 관리 업무도 그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전기아크로를 가동하면서 방출되는 흄은 집진기 필터로 포집이 되는데, 최재우 팀장은 집진기 등의 환경시설을 관리한다. 흄 이외에도 비산먼지, 파쇄분쇄 과정에서 생기는 먼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관업무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시·도·환경부 등에서 요청하는 환경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신고 업무도 꼼꼼히 챙긴다. 산업 분야에서 환경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으므로 철두철미한 관리가 필요하다.

Empowerment

조직관리! 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리더로!

최재우 팀장이 조직을 이끌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임파워먼트(empowerment)다. 팀장의 지시에 의한 소극적 자세가 아닌 구성원들 스스로 자율권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때문에 그는 팀 구성원들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준다. 자율권 보장은 구성원들 스스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아지는 효과를 발휘한다. 특히, 그는 "직원 개개인이 업무를 할 때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하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것이 바로 직원들 스스로에게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는 조직생활의 수직적인 구조에서도 수평적인 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산팀은 그 어느 팀보다 현장 직원들과 많이 부딪히는 팀으로, 40~50명의 현장 직원들과 하루 8~9시간 함께 일해야 한다. 현장에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쌓은 그들의 연배는 형, 삼촌, 아버지뻘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현장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관리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생산팀 구성원들이 각자 임파워를 갖고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게 최재우 팀장의 설명이다. 때문에 그는 직원들과 회의를 거쳐 함께 안건을 상의하고 함께 고민하며 실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성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생산팀의 역량을 높여가고 있다.

팀원들 모두가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팀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나에게 꼭 맞는 휴가를 찾아서

사람마다 일하는 방식도 사는 방식도 달라서 일과 생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 휴가를 보내는 방법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는 집에서 가까운 호텔에 머무는 호캉스가 좋은 반면, 누군가는 동남아라도 다녀와야 휴가를 보낸 느낌이 든다. 아이들과 신나게 물놀이 할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산책하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내가 가장 편안하게 재충전하는 방법은 나밖에 모른다. 행복한 휴가를 보내고 돌아와서 콧노래를 부르며 출근할 수 있도록 나만의 휴가법을 찾아보자.

How?

어떻게 보낼까?

어떤 사람은 엑셀로 시간표와 예산까지 꼼꼼하게 짜서 여행을 떠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무작정 떠나고 본다. 사람마다 계획도 천차만별.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하다보면 휴가 계획을 짜는 것조차 일처럼 느껴질 때는 아무 계획없이 따라 다닐 수 있는 패키지 여행이 고맙다. 최근에는 국내 패키지 여행도 잘 나온다. 휴가철마다 북적거리는 해변으로 차를 몰고 떠나는 대신 기차여행을 한다거나 국내선 비행기표를 검색해보면 의외로 많은 선택지가 있음에 놀라게 된다. 어디서든 물놀이만 하면 좋겠지, 하면 호캉스가 제격. 오고 가는 시간이 아깝다면 수영장 딸린 시내의 호텔을 예약해서 물놀이를 떠나보자.

Who?

누구와 떠날까?

일 년에 한 번, 가족과 함께 연례행사처럼 다녀오는 여름 휴가가 무척 기다려지고 행복한 사람도 있겠지만, 하루 이틀이라도 좋으니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사람이 있겠다. 어떤 사람은 북적북적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기운이 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때 재충전이 되기도 한다. 자신의 '혼자력'을 고려해서 누구와 휴가를 함께 보내면 좋을지 생각해 보자. 휴가가 3일이라면 2일은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1일은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등 아무진 계획을 세워도 좋겠다.

Where?

어디로 갈까?

한 달에 한 번씩 휴가를 떠나면 모를까, 일 년에 한 번이나 두 번쯤 있는 귀한 휴가라서 어디로 갈지 매번 고민이 된다. 휴가를 혼자 보낸다면 내 맘대로 가고 싶은 곳을 정할 수 있지만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면 여행지를 선정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딱히 가고 싶은 곳이 없다면 지도를 검색해보자. 포털 사이트의 지도서비스를 열면 그곳까지의 거리, 그곳의 숙박 시설, 숙박 요금, 관광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마음에 드는 곳이 있다면 원클릭으로 예약까지 가능하다.

When?

언제 떠날까?

아이들 학원 시간에 맞춰, 회사 일의 스케줄에 맞춰 휴가를 잡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최고 성수기에 떠나 바가지 요금에 시달리기 일쑤다. 누군가와 함께 휴가를 간다면 서로 조금씩 스케줄을 양보해 보면 어떨까. 가뿐히 혼자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여름 휴가를 고집하지 않아도 좋겠다.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되기 전인 6월이나 사람들에게 치이지 않는 9월을 고려해 보자. 여행 경비도 절약할 수 있을뿐더러 넉넉한 마음까지 더해진다.

당신의 휴가에 스며드는 책 3권

매 순간, 여행을 소망하는 이에게

<여행의 이유>

- 김영하 지음, 문학동네

김영하 작가가 처음 여행을 떠났던 순간부터 최근의 여행까지 자신의 모든 여행의 경험을 담아 써 내려간 아홉 개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 책을 읽으면 우리가 모두 여행자임을, 타인의 신뢰와 환대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임을 알게 된다. 서로에게 그런 여행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가장 순수한 여행의 경험을 찾아

<언젠가, 아마도>

- 김연수 지음, 컬처그라퍼

소설도 쓰고 산문도 쓰는 작가 김연수가 론리플래닛에 4년 반 동안 연재한 글을 묶었다. 어딘가로 향하는 길 위에서, 혹은 여행이 끝난 자리에서 마주하는 순간을 풀어냈다. 해외의 여러 지역과 국내의 여러 곳을 다니며 작가가 느꼈던 수많은 감정들은 어쩌면 우리가 여행에서 만나는 감정과 다르지 않다. 여행의 의미가 삶의 의미와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다.

오늘이 행복해지는 여행 안내서

<작은 여행, 다녀오겠습니다>

- 최재원 지음, 드로잉메리 그림, 자기만의 방

늘 휴가를 꿈꾸지만 매일 휴가를 떠날 수는 없는 법. 늘 주말을 꿈꾸지만 주말은 늘 주중보다 짧게 왔다 가버린다. 휴가의 달콤함이나 주말의 반짝임을 평소에는 느낄 수 없는 걸까. 궁금하다면 이 책을 읽어 보자. 익숙한 곳을 낯설게 봄으로써 매일 여행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퇴근길이 여행이 되고, 집이 베이스캠프가 되는 기분. 하루하루가 행복해진다.

팀원들과 떠나는 '맛집 탐방'

SIMPAC인더스트리 설계팀

이수영 팀장, 배성주 과장, 박종진 대리, 이경헌 대리,
하재준 대리, 이수진 사원, 신민규 사원

SIMPAC인더스트리 설계팀은 한 달에 한 번 여행을 떠난다. 이름하여 '인천 미식기행'. 중식·일식·체코 맥주 등 매번 주제를 바꿔가며 색다른 맛과 분위기를 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음을 활짝 열고 서로의 이야기를 귀담아듣는다. 설계팀이 이번에 찾은 곳은 캠핑 콘셉트의 한 고깃집.
이들의 한 발 빠른 도심 속 피서, 그 시원한 풍경을 함께 구경하자.

설계팀, '맛'으로 하나 되다

네온사인 번쩍거리는 먹자골목 한편으로 들어서자, 신천지가 펼쳐진다. 녹음 짙은 나무가 곳곳에 들어서 있고, 마당 여기저기에는 텐트가 펼쳐져 있다.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니 수영장 딸린 데크가 나타난다. 무성한 초록 잎이 그 곁을 지키고 섰다. 평소에도 팀원들끼리 맛집 탐방을 자주 다닌다더니, 그 말이 맞나 보다. 이번 달 '인천 미식기행'에 참여한 팀원은 7명. 출장 및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이 아른거리는지, 이수영 팀장이 아쉬운 목소리로 말한다. "최대한 날짜를 맞췄는데, 요즘 바빠서 모두 모일 수는 없네요. 그래도 많은 팀원들이 모였으니,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맛집 탐방은 SIMPAC인더스트리 설계팀원 모두가 좋아하는 공통 취미다. 이수영 팀장은 이 점을 감안, 팀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한 달에 한 번 마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회식은 '삼겹살에 소주' 정도이기 마련인데, 설계팀이 갖는 이 자리는 단순한 회식이 아니다. 평소 팀원들이 먹고 싶었던 요리 리스트를 모아, 술자리가 아닌 맛있고 독특한 음식 위주로 식당을 찾아다닌다. 팀원들이 이 모임을 맛집 탐방이라 부르는 이유다.

"평소에 맛보기 힘든 음식이나 맛있다고 소문난 집을 돌아다닙니다. 한 달에 한 번 탐방을 다닐 때마다 그달의 콘셉트를 달리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번 달에 일식집을 갔다면 다음 달에는 차이나타운 중식 코스 요리, 그 다음 달에는 체코 맥주 전문점을 가는 식입니다. 음식에 포커스를 맞추는 만큼 술은 가볍게 마시고, 그 집만의 맛을 제대로 음미하기 위해 애쓰죠. 이를 위해 팀원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의 회비도 냅니다. 같은 설계팀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맛집 탐방 동아리나 다를 바 없죠. 강제적인 회식이 아니기에 팀원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웃음)"

미식으로 나누는 이해와 공감

설계팀의 맛집 탐방에는 팀원들의 소통에 대한 고민도 담겨 있다. 설계팀은 업무 특성상 개별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티타임을 갖거나 밥을 먹으러 갈 때를 제외하면, 사무실이 상당히 조용하다. 서로 일이 바쁘다 보니 따로 시간을 내서 담소를 나누기도 쉽지 않다. 작년 7월 팀장이 된 이수영 팀장은 이 점이 아쉬웠고, 부족한 소통 시간을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로 채우고 싶었다. 그리고 이 같은 마음은 다른 팀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논의 끝에 모두가 좋아하는 맛집 탐방을 이른바 '설계팀 공식 취미'로 정했고, 약간의 회비를 모아 한 달에 한 번씩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고 있다.

"맛집 탐방 시에는 회사나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되도록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주제는 이미 회사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밖에 나와서까지 이야기를 꺼내면 팀원들이 부담을 느낄 테고, 결국 맛집 탐방도 피하게 될 테니까요. 대신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눠서, 서로의 상황과 사정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기분 좋아지고,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설계팀만의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의 취미가 아닐까요?"

이야기 주제는 따로 정해 놓지 않는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때그때 특별한 일이 있는 팀원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간다. 요즘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팀원은 신민규 사원. 올 9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통에 이와 관련된 질문과 조언이 줄을 잇는다고. 그런가 하면 이경헌 대리는 최근 아파트 청약에 관심이 많아, 인생 선배들에게 관련 지식과 노하우를 자주 묻는다. 이처럼 사적인 대화를 나누고 나면, 사무실 분위기가 한층 좋아지고 업무 효율도 높아진다는 게 이수영 팀장의 설명이다. 설계팀이 맛집 탐방으로 거두는 성과가 단지 미식만은 아닌 셈이다.

본질과 서로를 향한 거침없는 발걸음

설계팀은 젊은 조직이다. 팀원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일 정도.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팀원들은 청춘의 열정과 패기로 모자란 부분을 메워 간다. 특히 습득력에 관한 한 이수영 팀장이 극찬할 만큼 뛰어나다고. 덕분에 설계팀은 하루하루 안정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다.

최근 설계팀의 분위기는 상당히 고무돼 있다. 한국타이어 등 국내 주요 고객사에서 국산화 정책을 펼치고 있거니와, PVC 관련 설비의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다. 하지만 업계 전반이 침체돼 있는 상황을 놓고 볼 때, 오히려 바쁜 게 다행이라고 팀원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각자 일이 있고 프로젝트별로 업무가 나뉘어져 있지만,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설비를 설계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입니다. 다행히 팀원 모두 이러한 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업무에 임하고 있고, 그만큼 고객사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계팀은 이러한 본질을 중심에 두고, 흔들림 없이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맛집 탐방이 서서히 저물어 간다. 밤이 깊어갈수록 팀원들의 이야기도 점점 깊이를 더해간다. 맛있게 구워진 고기, 선선하고 상쾌한 바람, 사방에 깔린 초록빛과 잔잔한 음악, 그리고 이 시간을 함께 나누는 좋은 사람들. 이 모든 게 한데 모여 있는데 부러울 게 무엇이랴. 도심 속 피서지에서, 설계팀은 서로에게 한 발씩 더 다가가고 있었다.

MINI INTERVIEW

배성주 과장

설계팀 업무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평소에는 소통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팀워크를 다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팀장님과 많은 논의를 했고, 맛집 탐방이라는 콘셉트를 정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부담없이 야외에 나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서로 사는 이야기도 나누다 보면 업무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회사에서도 '내가 도와줄 건 없나?' 살피게 되더군요. 좋은 단합의 계기를 제공하는 만큼, 설계팀의 맛집 탐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MINI INTERVIEW

이경헌 대리

저희 팀은 기계설계파트와 전기설계파트가 있는데요. 두 파트의 호흡이 잘 맞아야 비로소 하나의 설비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평소 업무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요.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었어요. 저희가 맛집 탐방을 시작하고 보니, 업무 외 친밀감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여기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업무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서로를 배려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맛있는 요리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이 시간이 행복합니다!

SIMPAC STARGRAM

SIMPAC인 여러분의 생활 속 장면과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이번 호는 '여행'을 주제로 심팩인들의 일상을 함께합니다.

여행스타그램

이 코너는 사우들의 투고를 받아 인스타그램 형식으로 재구성합니다.
사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원고와 사진은 각 사 사보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SIMPAC 프레스BU 재무회계1팀
이은오 대리

2019년 이루고자 하는 목표 중 하나는 월 1회 캠핑 다니는 것이에요:) 올해 벌써 3번째 캠핑을 다녀왔는데 캠핑의 매력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 삶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며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올 여름에는 캠핑과 서핑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갈까 합니다. 저 만의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이룰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설레네요.
#2019년 #목표 #캠핑 #힐링 #나만의 버킷리스트

SIMPAC 메탈BU 생산지원팀
김지연 사원

지난 1월 동생 전역과 동시에 저희 가족은 2주간 동유럽 자유여행을 떠났습니다. 한 겨울에 떠난 여행이라 많이 추웠지만 한국에서 보기 힘들었던 맑은 하늘과 기대하던 야경들을 보니 추위를 싹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사진으로 담기 어려웠고 추운 강바람을 맞으며 걸었던 까를교와 프라하성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프라하성에 있는 스타벅스가 빠지지 않는 명소라고 하는데 못 가본 것이 너무 아쉬울 뿐입니다.ㅠ—ㅠ 시간이 부족하지 못하여 가보지 못 한곳이 많았지만, 부모님과 떠나는 첫 자유여행이라 힘들었지만 다른 여행보다 더욱 즐겁게 다녀온 2주간의 동유럽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스타그램#가족여행#동유럽여행중#까를교#프라하성

SIMPAC홀딩스 ENG BU 생산관리팀
구미영 사원

얼마 전 평소 너무나 가보고 싶었던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역사를 미리 알고 관광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에게 태국의 왕궁은 최고의 관광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멋진 곳이었고, 다양한 벽화와 웅장하고 화려한 금빛 조각상들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음식중에서는 특히 게로 만든 '푸팟퐁커리'가 기대이상으로 정말 맛있어서 1일 2푸팟퐁커리를 했는데 왜 현지에서 먹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는 음식이었습니다 :) ♥
#태국여행#왕궁#푸팟퐁커리#JMT

CONGRATULATIONS!

결혼을 축하합니다

HAPPY WEDDING

2019. 5. 5

SIMPAC 프레스BU 고객지원팀 박정환 대리

먼 길 와서 힘들겠지만, 앞길은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열심히 같이 또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2019. 4.13

SIMPAC 프레스BU 기계설계팀 공상우 사원

13년 동안 기쁜 일 슬픈 일 특별함을 공유하던 우정에서
이제는 부부가 되었네.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일상의 행복을 공유하는 부부가 되자!

하나된 변화, 새로운 도약

SIMPAC그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레스 제작, 합금철 개발 및 생산, 철강 유통 및 가공 사업을 주도하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늘의 SIMPAC을 있게 한 원천인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이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먼저 도전하고 그 도전을 이루어 내는 First Mover의 모습을 앞으로도 이어가고자 합니다.

Taking the Next Leap Forward as One

SIMPAC Group

SIMPAC 홀딩스

SIMPAC그룹 지주회사
-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포트폴리오 관리
- 철강 가공 및 유통

SIMPAC 프레스BU

국내 No.1 프레스 메이커
- 기계식, 유압식, 서보프레스 생산

SIMPAC 메탈BU

국내 Top-tire 합금철 메이커
- 페로망간 및 실리콘망간 합금철 생산
- Roll 가공 및 제조

SIMPAC 인더스트리

글로벌 기계 메이커들의 든든한 파트너
- 산업기계 및 감속기 생산

SIMPAC 주물

국내 대표 주조 메이커
- 주조주물 생산

리스텍비즈

세계 최고수준의 리사이클링 기업
- 고순도 산화아연 생산